

충북농어촌공사 '미래경영리딩'최우수 부서 선정

성지연 기자 wldus2916@gmail.com

기사입력 2025.12.08 17:32:24 최종수정 2025.12.08 17:32:24



- 최현수(오른쪽)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이 '2025년 미래경영 리딩부서' 최우수 본부로 선정돼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8일 나주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농어촌공사 창립117주년 행사'에서 '2025년 미래경영 리딩부서' 평가 부문 최우수 본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래경영 리딩부서'는 매년 전국 각 지역본부 혁신역량과 미래사업 선도성을 비교·심사해 최고의 부서를 선정하는 것이다.

올해는 충북본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중심으로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의 구축, 지역 기관과 협력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본부'로 최종 선정됐다.

충북본부는 '기본을 지키는 안전관리'라는 원칙 아래 무재해 현장을 실현해 안전 분야에서도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건설현장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회전식 안전판 '안전개비'와 다국어 기반 'LED 안전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황룸'과 'KRC 충북 종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첨단 기술 기반의 안전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청렴문화 분야에서는 직원 참여형 캠페인 '청렴 FULL, 부패 LESS' 운영과 청렴기고문 등 자체 자정 문화 강화로 직원 스스로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관급계약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천 중심의 청렴체계를 구축한 점 또한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ESG·사회공헌 영역은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한 '농어촌 IT 서포터즈' 활동과 도내 12개 기관과 협업해 201개 '자원순환형 낙상방지안전바'를 무상 설치한 사업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상생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현수 본부장은 "이번 미래경영 리딩 최우수부서 선정은 지역사회의 현실과 미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안전·청렴·ESG 등 모든 경영 영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충북본부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